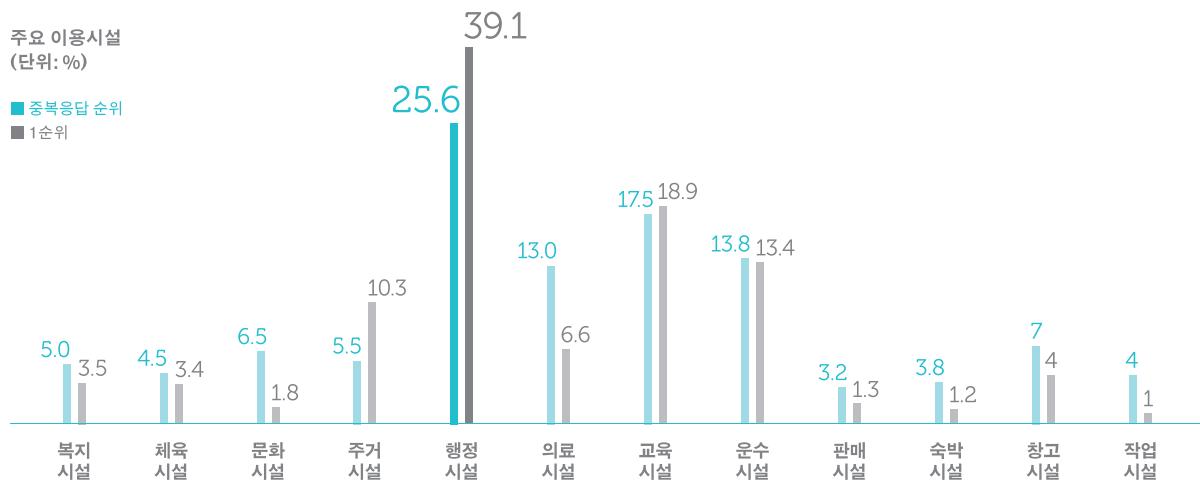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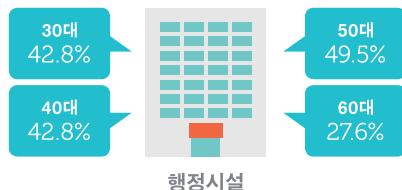
공공건축, 얼마나 이용하고 어떻게 인식할까?

본 통계는 지역별 인구 분포* 및 연령대별 인구 비율**을 고려하여 20세 이상 일반인 1,000명을 대상으로
온라인 위치 기반,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.

Q 주요 이용 시설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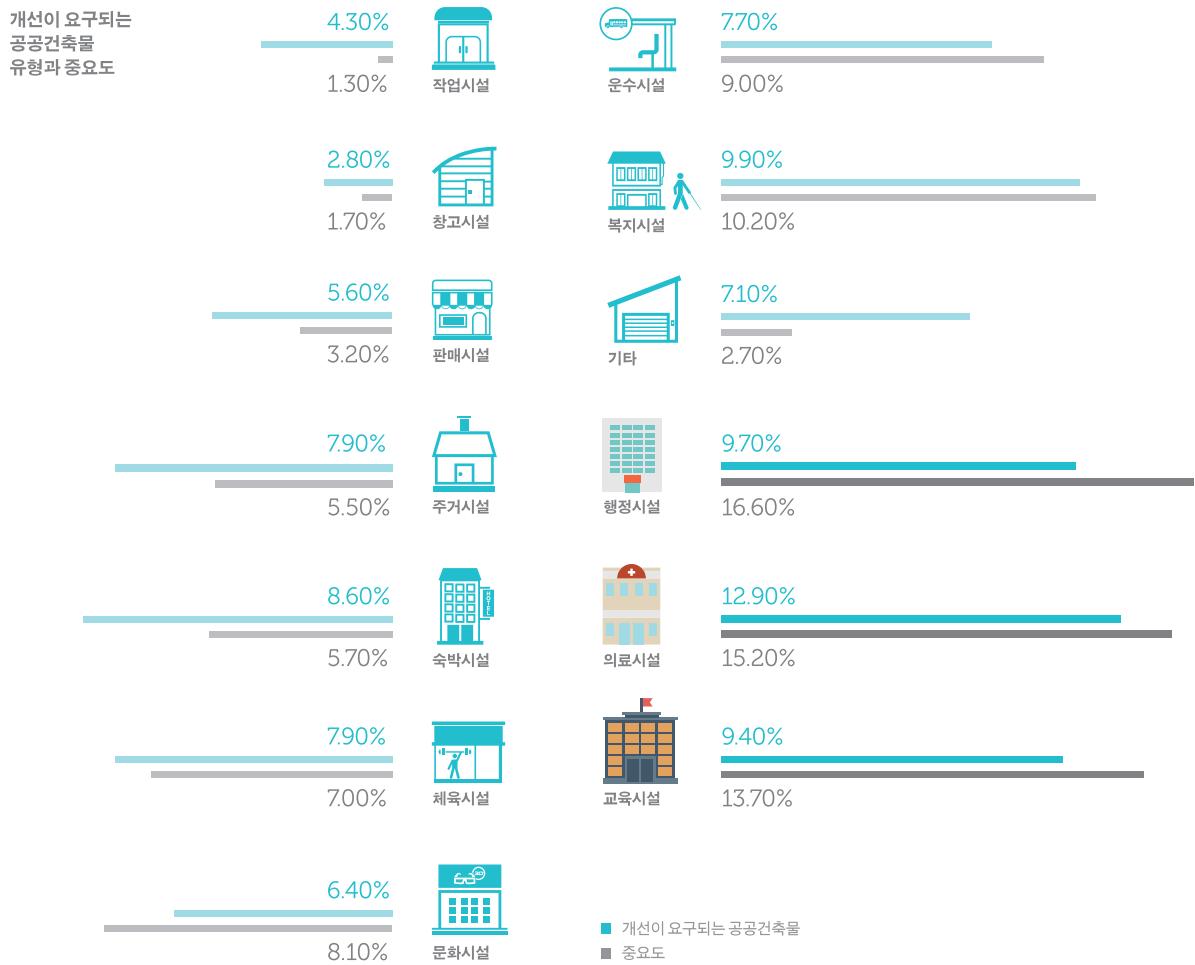


연령별
주요
이용시설
(1순위)



A '행정시설', '교육시설'을 주로 이용

주로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유형으로는 중복응답 기준***으로 행정시설(25.6%), 교육시설(17.5%), 운수시설(13.8%), 의료시설(13.0%)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. 특히 연령대별 주 이용시설 중 20대가 교육시설과 운수시설에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학교 통학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

A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시설은 '행정시설', '교육시설', '복지시설', '의료시설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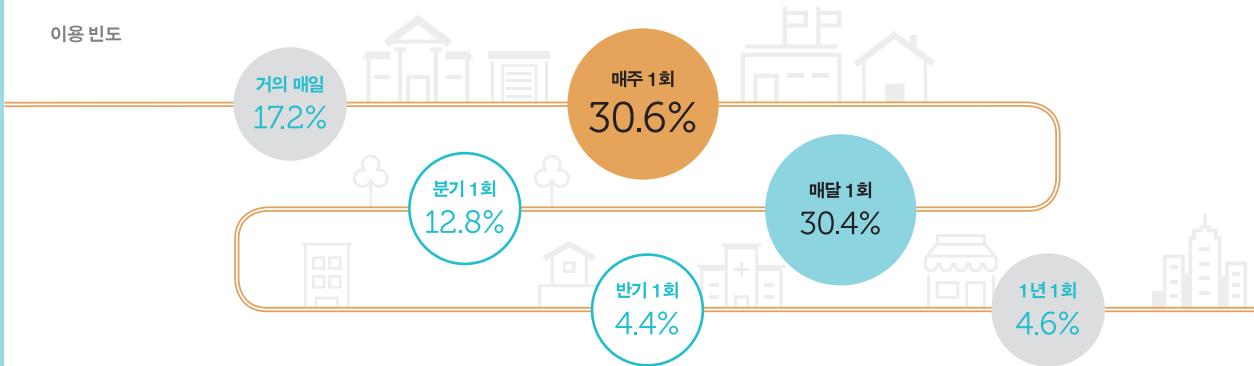
행정시설(16.6%, 중복응답기준), 의료시설(15.2%), 교육시설(13.7%) 순으로 조사되었으며, 이용이 불편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로는 의료시설(12.9%)이 가장 높고 행정시설, 복지시설, 교육시설이 9% 내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.

* 서울특별시 25%, 부산광역시 7%, 인천광역시 6%, 대전광역시 4%, 대구광역시 5%, 광주광역시 3%, 울산광역시 2%, 경기도 24%, 강원도 3%, 충청북도 2%, 충청남도 3%, 경상북도 4%, 경상남도 5%, 전라북도 3%, 전라남도 2%, 제주도 1%

** 20대(23%), 30대(28%), 40대(29%), 50대(20%)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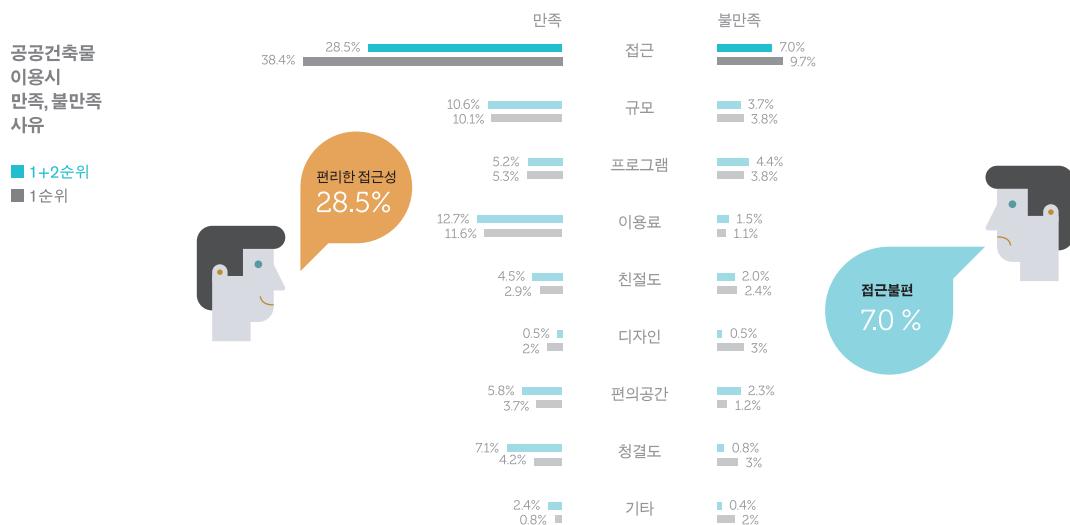
*** 가중치는 1순위에 4, 2순위에 3, 3순위에 2, 4순위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함

Q 이용 빈도와 만족 요인은?



A 매주 1회에서 매달 1회 이용

공공건축물의 이용 빈도는 '매주 1회 정도'(30.6%), '매달 1회 정도'(30.4%), '거의 매일'(17.2%) 순으로 나타났다. 이용 빈도별로 시설 용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주로 주거 시설(27%), 교육시설(22.6%), 운수시설(16.5%)을 이용하는 것으로, 주1회 이용자는 행정시설(44.2%), 교육시설(22.1%), 주거시설(12.2%)을 이용하는 것으로, 매월 1회 이용자는 행정시설(48.6%), 교육시설(15.4%), 운수시설(13.6%)을 이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.



A 접근성이 이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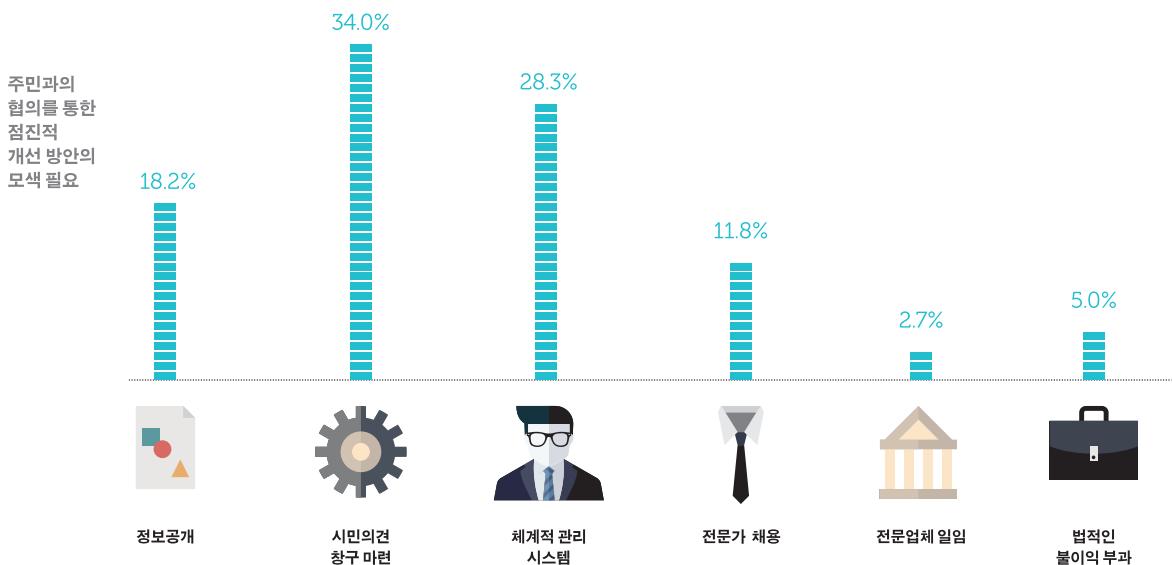
공공건축물을 이용시 만족하는 이유로 '편리한 접근성'(28.5%, 중복응답 기준)이 가장 많았고, '저렴한 이용료'(12.7%), '크고 여유있는 시설'(10.6%) 순으로 나타났다. 반면, 불만족하는 이유로 '불편한 접근성'(7.0%), '유익한 프로그램이 없어서'(4.4%), '규모가 협소해서'(3.5%) 순으로 나타나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응답자 모두 접근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.

Q 공공건축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은?



A 적정한 입지 확보와 경제적 시설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

공공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편리한 접근성(24.0%), 경제적인 운영으로 관리비용 절감(20.9%)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활용 목표 중 입지의 적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대해 시민들이 높은 공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

A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점진적 개선 방안의 모색 필요

공공건축물을 잘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는 ‘시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청구 마련’(34.0%), ‘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’(28.3%)이 높은 순으로 조사되고 있어 정부 위주의 하향식 조치가 아닌 주민과의 협력 및 상향식 개선 방향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